

전주한옥마을 전통관광콘텐츠 확대

전주시,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기점놀이 길놀이 전통연희 퍼레이드' 진행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남천교에서 경기전까지... 수문장 교대의식, 오후 2시에



앞으로 매주 토요일 전주한옥마을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경기전에서는 수문장 교대의식도 진행돼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진다.
전주시는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한 전통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전주기점놀이 길놀이-전통연희 퍼레이드'와 '경기전을 지켜라-경기장 수문장 교대의식' 전통관광콘텐츠를 확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2017. 전라북도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 공모에 합숙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에서 제안한 '전주기점놀이 길놀이'가 선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옥마을 일대에서 '전주기점놀이 길놀이 전통연희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실제로, 전주기점놀이 길놀이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13일 진행됐다.
이번 전통연희 퍼레이드는 남천교 청연부에서 진행되는 무료 깃발 만들기 체험과 전주기점놀이를 중심으로 한 연희퍼레이드와 거점별 연희공연, 어르신 취타대 공연 등으로 이뤄진다.
퍼레이드에 참여하길 원하는 관광객들은 깃발 만들기 체험에 참가해 만든 깃발을 들고, 남천교에서 출발해 은평로와 태조로, 경기전을 거쳐 풍남

문광장까지 총 800미터 거리에서 진행되는 퍼레이드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시와 (사)전통문화마을은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에서 '경기전을 지켜라 -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조선시대 왕궁을 수위하던 수문장의 교대의식을 참고해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을 전주다움으로 새롭게 연출한 프로그램이다.
수문장 교대의식은 경기전 수비를 담당하는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과 수문장을 보좌하고 출문부를 관리하는 종사관, 경기전 관리책임자로 교대의식을 감독하는 전지, 대종과 관리감독과 타고를 진행하는 수종장, 경기전 전문 수호하는 충의군과 파수병인 기수대, 군대행렬 신호 및 행렬을 담당하는 취타군으로 이뤄진다. /김민근 기자

'특혜논란' 이견식 김제시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전주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이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견식(72) 전북 김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12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공무원임의직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제시로 하여금 금주로부터 가족면역증강제를 고가로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80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김제시에 동역 상담의 손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시장은 재판 직후 "모든 것이 재빨리 풀리며 부덕의 소치"라며 "김제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의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족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 정모(63)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족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억원 미만 분할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또 시 예산으로 별도 구매가 불필요함에도 정씨의 회사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업체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2009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현금 5000만 원씩 총 1억원을 이 시장의 아내를 통해 이 시장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

여친 아버지 신용카드 훔쳐 홍청망청 사용한 30대 구속

여자친구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30대 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안경찰서는 지난 12일 신용카드를 훔쳐 3900여만원 어치를 사용한 혐의(여신금융전달법 위반 등)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여자친구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9시께 진안군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김모(52)씨의 집 안에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부터 4개월 동안 34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았고, 여자친구 아버지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64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117차례에 걸쳐 8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훔친 카드로 총 3900여만원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훔친 카드로 차량을 대여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전주와 서울, 경기도 등을 돌아다니며 홍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확인하면서 끝이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차량 등을 추적해 들을 붙잡았다. /김민근 기자



안전신고 우수자 포상금 수여 송하진 도지사는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안전신고 다수신고 및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안전신고 우수자 44명에게 포상금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들' 1차 검정고시 52명 합격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7년 1차 검정고시 시험'에서 총 5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1차 검정고시에는 센터의 스마트교실에 참여했던 학교 밖 청소년 53명이 응시했으며, 1명의 결시생을 제외한 52명이 합격함으로써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스마트교실에서는 도내 사범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과 자격증 소지자, 학원 및 멘토 경력자 있는 5명의 멘토 선생님이 직접 검정고시 과목을 지도하고 있다.
또 부족한 과목들은 개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상담원들의 지속적인 상담과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센터는 이번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학업 복귀뿐만 아니라 개인별 목표에 맞는 자격 취득, 직업훈련, 상급학교 진학 등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스마트교실에 참여한 K모(15)군은 "혼자서 공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생후 5개월 영아 차량 안에 방치됐다 구조

생후 5개월가량 된 영아가 부모의 부주의로 차량 안에 방치됐다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지난 12일 전주완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9분께 전주시내에서 승용차 안에 5개월가량 된 영아가 차량에 방치됐다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나가는데 우연히 차량을 봤는데 조수석에 아기가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는 상태로 30~40분째 울고 있어 걱정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차량 문은 잠겨있는데다 연락처가 부차때 있지 않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곧바로 잠금장치 해제도구를 이용해 운전석 문을 연 뒤 아기를 구조했다.
다행히 아기는 외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아 차량 안에



있던 빗방울을 물려 아이를 달랬다.
이후 경찰에게 차량 조화를 요청해 부모에게 연락한 뒤 아기를 인계했다.
아기 부모는 "아기가 자고 있어 잠깐 불임을 보고 오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유아의 차량 갇힘 사고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